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Deposit Stations in Japanese Colonial Era

조 용 완 (Yong Wan Cho)**

목 차

- | | |
|-------------------------|-------------------|
| 1. 서론 | 3.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특징 |
| 2.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운영주체별 유형 | 4. 요약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국내 도서관 인프라가 빈약한 상황에서 도서관을 대신하여 널리 활용되었던 순회문고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는데, 각종 역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아카이브 등을 대상으로 당시의 신문자료, 관보, 잡지 기사, 통계자료, 관련 도서와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운영주체는 일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해 일제 통치를 지원하는 일제 관변단체,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열의 항일독립단체, 기타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 그리고 부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 등의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순회문고 들을 설치시기, 설치목적, 봉사대상과 봉사권역, 운영방식(운영비, 순회구역, 운영기간, 이용자격, 이용방법, 대출일 수와 대출권수, 이용 주의사항 등), 장서의 주제와 장서량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순회문고는 당시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deposit stations in Japanese Colonial Era of Korea. To do this,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ed literature such as articles, records, statistics, books and reports selected from databases, archives and libraries. The deposit stations were categorized by the colonial governmental bodies that include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y the non-governmental bodies that included the quasi-public organizations, the anti-Japanese organizations and the other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and by the public libraries. These deposit station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time and purpose of establishment, the audience and area of the services, the ways of the services and the theme and quantities of the collections. Finally, the study could find that the deposit stations were widely adopted to supplement the lack of a library infrastructure by various administrative bodies and non-governmental bodies in Japanese Colonial Era of Korea.

키워드: 일제강점기, 순회문고, 단체대출, 아웃리치, 공공도서관, 한국 도서관사

Japanese Colonial Era, Deposit Station, Bulk lending, Outreach, Public library, History of Library in Korea

* 본 논문은 2019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yongwan@cu.ac.kr / ISNI 0000 0004 6484 6697)

논문접수일자: 2022년 1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2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2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119-150,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1.119>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헌정보학용어사전〉¹⁾에 의하면, 순회문고는 “대출문고”라는 용어로 대신 사용되며,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일정량의 공공도서관 장서를 특정장소(학교, 상점, 클럽, 기타 기관 및 단체)에 보내어, 그 장소를 서비스거점으로 삼아 이용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책으로 교체해 주는 서비스 방법. 단체대출의 한 형태”로 정의되어 있으며, “기탁소”(deposit station)라는 용어로도 표현되고 있다. 순회문고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국내의 공공도서관들이 도서관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 복지/요양 시설, 기업, 단체, 아파트단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서비스 방식이다.

순회문고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언제인지는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관련 연구와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서양의 공공도서관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를 살펴보면, 1895년 출판된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에 서적고(書籍庫)란 항목에서 도서관을 소개하였고, 1901년 부산에서 일본인 단체인 흥도회 부산지부가 도서실을 설치한 이후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1909년 경성, 1911년 인천 등지에 도서관과 문고 등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06년에는 조선인들에 의해 설립된 평양의 대동서관(大同書館)과 정부인사를 중심으로 경성에서 설립이 추진되었던 한국도서관(이후 대한도서관으로 개칭) 설립 운동 등이 발생하였다(권은경, 1982, 10-13; 송승섭, 2021, 172; 김영석, 이용재, 2018, 133-135). 이러한 움직임의 영향으로 당시 일반 시민들도 도서관을 통해 각종 서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당시 조선의 도서관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였다. 관련 연구(김경희, 2021)에 따르면, 1907년부터 일제에 의해 전국적 부제(府制)가 실시된 1914년 사이 국내 도서관 수는 1907년 5개관, 1908년 5개관, 1909년 6개관, 1910년 3개관, 1911년 4개관, 1912년 5개관, 1913년 8개관, 1914년 10개관 정도에 머물렀다. 이 중 조선인이 설립한 도서관은 1906년 평양에 설립된 대동서관과 1906년 경성에 설립된 대한도서관, 1910년 경성에 설립된 학생서적종람소 등 3곳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일본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1910~1942년 도서관 통계를 확인한 결과, 〈표 1〉²⁾과 같이 당시 국내 도서관 수는 1910년 3개관에서 1932년 최대 52개관이었다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에는 43개관 정도였다. 당시 전국의 13개도에서 평균 3-4개 도서관 정도를 보유하고

1) 한국도서관협회 [발행년불명].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출처: <http://www.kla.kr>

2) 1910~1915년의 통계연보에는 도서관 통계의 명칭이 〈내지인(內地人) 설립 도서관 현황〉으로 표기되어 당시 조선인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통계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1916년 통계부터 이 통계의 명칭은 〈도서관 현황〉으로 변경되었다. 이 통계에는 일부 오류도 있었는데, 1927년 도서관 수는 45개관이 아닌 44개관이었고, 1930년도 48개관이 아닌 49개관이었다. 1944년에 발행되는 1943년 통계연보는 태평양전쟁 등으로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 일제강점기 국내 도서관 설립 현황

연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도서관계	3	5	8	10	12	15	15	16	16	20	18	19	24	23	30	36	42
관립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공립	0	0	0	0	0	0	2	0	2	5	5	6	11	9	13	16	26
사립	3	5	8	10	12	15	13	16	14	15	13	13	13	14	16	19	15
연도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도서관계	45	46	49	48	50	52	51	49	46	46	44	43	44	42	44	43	-
관립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통계 연보
공립	10	14	16	16	21	17	17	17	17	18	18	20	20	21	20	41	없음
사립	33	30	31	31	27	33	32	30	27	26	24	21	22	19	22		

(출처: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고 있는 수준으로, 대다수의 군에는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³⁾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순회문고는 도서관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었는데, 매우 다양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들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설치 또는 설치계획이 추진되었다.⁴⁾ 당시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부산, 신의주 등을 넘어 만주 일대에서도 널리 순회문고가 운영(계획 포함)되었고, 운영 단계 측면에서는 일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부터 일제의 관변단체와 항일운동단체, 기타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공공도서관 등에서 순회문고를 운영하였다. 이처럼 당시 도서관을 대신한 순회문고가 활발히 운영되었음에도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당시의 언론보도와 각종 문서, 관련 선행연구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 순회문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운영되었던 순회문고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설치주체별로 순회문고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관에 의한 순회문고로,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기관 등 일제의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한 순회문고, 지방행정기관인 도(道)와 도 관할의 부군(府郡), 그리고 지역의 경찰서나 학교 등에서 운영한 순회문고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민간에 의한 순회문고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지원하는 일제의 관변단체가 설치한 순회문고, 이와 반대 세력인 항일독립단체에 의해 실시된 순회문고, 그리고 정치

3) 1932년 전국 도서관 수가 52개로 일제강점기 중 가장 많았지만, 경북 2곳, 강원도 2곳, 황해도 1곳, 함경북도 1곳 등으로 나타났다.

4) 실제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순회문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국이 지정한 도서관의 문고에 대해 소하물 운임을 50% 할인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26-02-11).

색이 없거나 성향 파악이 어려운 민간단체와 천도교와 개신교 등 종교단체에서 실시한 순회 문고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부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순회문고 등도 분석되었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파악된 일제강점기 순회문고들을 설치시기, 운영주체와 운영목적, 봉사대상과 봉사권역, 운영방식(운영비, 순회구역, 운영기간, 이용자격, 이용방법, 대출일수와 대출권수, 이용주의사항 등), 장서의 수량과 주제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으로, 일제강점기 국내 순회문고에 관한 문헌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와 기타 원문자료,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가기록원의 <조선총독부기록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언론사 기사 DB,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에 관련된 신문기사, 잡지기사, 관보, 통계자료, 연구논문과 연구도서, 자료집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우선 일제강점기 국내 도서관 활동에 관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김포옥(1979)은 일제강점기 공공도서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근대도서관의 실태와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는 당시 일제는 식민지 정책수행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들을 설립하였기에, 이들 대부분은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일

제의 식민지 강화 및 제국주의 수탈의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김남석(1991)은 일제강점기 청년단체의 도서관 설치활동을 통치시기별, 지역별, 단체별로 살펴보고, 이 도서관의 설치 취지나 도서관 설치 결정과정, 재원과 시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단체에 국한되었다는 측면과 순회문고라기보다는 소규모 도서관을 의미하는 문고와 도서관, 간이도서관, 도서부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이 당시 전국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순회문고 활동을 분석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김남석(1996)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조선의 식민지 고착화를 위해 일제가 추진한 조선농촌진흥운동의 일환이자 황국신민화 교화활동으로 추진된 농촌문고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소규모의 농촌도서관인 농촌문고의 설립 실태, 운영과정, 활동내역 등을 검토하여 당시 농촌문고는 일제의 교화운동 최말단 집행시설이자 전쟁수행을 위한 농촌갱생의 거점기관으로써 기능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에 설립, 운영되었던 특정 도서관을 집중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하였다. 김남석(2001)은 일제의 행정기관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공공도서관인 대구부립도서관은 근본적으로 도서관을 통해 일제의 침략정책과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이식하고 조선의 지식인들을 회유, 교화하려는 일제의 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이어서 대구부립도서관의 설립과정과 직원구조, 자료조직, 열람봉사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조용완과 김종성(2021)은 일제강점기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부분과 비교, 검증을 실시하여 과거 원문자료 등의 부

족으로 인해 발생한 도서관 조례 제정일, 최초 도서관 건물의 형태, 도서관 신축 건물의 착공과 준공, 개관 등의 일자 등에 관한 오류를 지적하였다. 김영석과 이용재(2018)는 기존 관련연구와 여러 역사자료에서 일본홍도회 부산지부 도서관이 국내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들은 1901년 10월 부산에 설치된 일본홍도회 도서관은 일본인에 의해 건립되었고,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목적도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것이었고, 장서에서도 대부분 일본 서적이었으며, 홍도회라는 단체가 일제강점기 전후에 일본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단체라는 점을 들어 홍도회 도서관에 국내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경희(2021)도 근대 부산지역의 교육과 도서관 설립과 성장과정,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 규명하고자 부산 최초의 근대학교인 개성학교와 일본홍도회 부산지회의 문고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는 개성학교와 일본홍도회 부산지회의 문고를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적 기관이 아니라 일제의 황국신민화와 조선의 국권피탈과 경제적 침탈을 위한 수단이라고 결론지었다. 송승섭(2020)은 일제강점기에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이라는 이름을 가진 3곳의 도서관, 즉, 1908년 일본인 山口精이 세운 경성도서관과 1920년 윤익선 등이 서울 가회동 취운정에 세운 경성도서관, 1921년 이를 인수한 이범승이 탑골공원에 세운 경성도서관 등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 도서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기존 연구에서 혼동된 경성도서관의 변천과정을 제대로

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한 줄기를 형성하는 철도도서관의 순회문고를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포옥(1982)은 일제강점기 관립 도서관 중 특수도서관에 해당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한 철도도서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관련 자료들을 통해 철도도서관의 설립과정, 조직구조, 직원현황, 재정, 장서, 봉사 등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중 일부분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순회문고에 연결된 철도도서관의 직원 순회문고, 교양문고, 가족문고, 심전개발문고, 열차문고, 호텔문고 등에 대해 그 성격과 규모 등을 정리하였다. 배은선(2017)은 일제강점기 철도부문에서 진행된 철도종사원에 대한 양성교육과 철도도서관의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그는 경성철도학교와 철도종사원양성소 등을 통해 철도종사자 양성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철도도서관의 설립과정과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그 일부로 교양문고, 심전개발문고, 가정문고, 열차문고, 호텔문고 등 순회문고 활동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동안 국내 도서관의 전반적 상황이나 개별 도서관의 활동, 소규모 도서관인 농촌문고의 운영, 그리고 순회문고가 일부 포함된 철도도서관의 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존재하였지만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의해 널리 활용되었던 순회문고에 대해서는 철도도서관의 순회문고에 대해서만 일부 조사되었을 뿐 전국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순회문고 활동을 다루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2.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운영주체별 유형

2.1 관에 의한 순회문고

2.1.1 중앙행정기관

① 조선총독부도서관

중앙행정기관의 순회문고로는 먼저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으로 1925년 4월 3일에 개관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순회문고들이 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3787호, 1925-04-02). 그 중 하나로 당시 일제를 위해 국경을 경비하는 수비대와 경관들을 위한 순회문고가 존재하였는데, 주로 오락물 20책 정도로 20일간 1개소씩 운영하였다. 1928년도 예산에 1개월 5백원, 연 6천원이 계상된 바 있으나(조선신문 1928-01-10) 더 이상 운영되었는지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총독부도서관의 다른 순회문고로는 각 지역의 부립도서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순회문고로, 일종의 도서관간 집단대출 형태였다. 1931년 총독부도서관의 장서 수가 10만권에 도달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장서 수가 부족한 지방의 부립도서관 등을 지원하고자 순회문고를 운영하였다. 이 순회문고는 1931년 10월부터 부산, 함흥, 신의주 등 3곳의 부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는데, 예상 밖의 좋은 이용성적을 보이

자 총독부도서관에서는 이후 전 조선에 순회문고망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朝鮮之圖書館, 1931, 28-29; 朝鮮之圖書館, 1932, 23). 그 결과, 1935년 6월에는 목포와 개성⁵⁾의 부립도서관, 같은 해 11월에는 대구부립도서관과 원산공립중학교로 확대되어 이 순회문고의 운영은 총 7개 도시로 확대되었다(文獻報國, 1935b, vi). 1937년에는 인천부(仁川府) 도서관도 이 순회문고의 대상에 포함되었고⁶⁾, 1940년 4월과 6월에는 각각 평양과 대전의 부립도서관까지 확장되어 총 10개 도시에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순회문고는 늦어도 1932년부터는 부산, 함흥, 신의주를 대상으로 매월 1회씩 발송하였는데, 1935년 <文獻報國> 제1권 제2호의 조선총독부 순회문고 회송현황에는 다른 6곳과 달리 원산공립중학교는 매월 1회가 아닌 특별대출로 기록되어 부정기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文獻報國, 1937, 18; 文獻報國, 1935a, v; 文獻報國, 1935b, vi; 國立中央圖書館, 1973, 215).

② 조선총독부 철도국 철도도서관(만철경성도서관)

조선총독부 산하기관 중 철도국과 철도국으로부터 일정 기간 국영철도를 위탁운영한 일제의 국책기업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州鐵道株式會社, 만철)도 순회문고를 운영하였다.⁷⁾ 만철 경관국(京管局, 경성관리국)은 각 노선

5) 당시의 언론기사에서는 다수의 도서가 포함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순회문고가 황해도 개성 도서관에 도착하였는데, 도서관 측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의 내관을 기대하였다고 기술하였다(조선신문 1935-06-01).
6) 1937년에 발간된 <文獻報國> 제3권 제9호에는 1937년 7월 27일 인천부도서관에 조선총독부 순회문고 7개소가 회송되었다고 기록되었다.
7)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의 설립과 함께 철도국이 설치되었다가 1917년 7월 31일 조선총독부 소유의 철도 전 노선이 만철로 위탁운영 되었다. 이후 총독부와 만철간의 상호 이해가 만족되지 못해 1925년 4월 1일부터 조선지역의 철도는 다시 조선총독부 철도국으로 환원되었다. 위키백과 [발행년불명]. 출처: <https://ko.wikipedia>

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지적 수양과 위안을 위해 최소 1921년 이전부터 만철 사우회(社友會)를 통해 순회문고를 운영하였는데,⁸⁾ 이후 만철의 조직 쇠퇴 과정에서 순회문고 업무는 만철경성도서관(滿鐵京城圖書館)으로 이관하였다. 1921년에 재개된 순회문고는 전 노선을 30개로 구분하여 순회구역을 설정하고, 20일 단위로 순회문고를 순환시켜 지방근무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조선일보 1921-09-29). 1925년 4월 만철의 위탁운영 종료 후 만철경성도서관은 조선총독부 철도국 소속 철도도서관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순회문고도 철도도서관에서 운영되었다(배은선, 2017, 123-124). 이 순회문고는 계속 성장하여 1925년에는 약 50여개 구역에 3~6상자씩 약 300상자를 회송하였고, 1936년도에는 275개 구역에 1상자씩 회송하였으며, 1937년도에는 상자 수가 350개에 달했다. 1939년에는 334개 구역에 20책이 든 1상자씩을 회송하여 약 6,700권 정도였다가 1925년 11,102책 규모로 성장하였고, 1940년 2월말에는 28,460책으로 더욱 확대되었다(배은선, 2017, 140; 朝鮮總督府, 1939, 109-110; 김포옥, 1982, 71; 동아일보 1940-04-02). 1922~1936년 순회문고 열람

통계에서 살펴보면, 문학과 어학이 전체의 41%, 총기(총류)와 사회과학이 각각 12%인 반면, 산업/교통/통신, 이학/의학, 공학/병사가 각각 3% 수준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자료의 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조선총독부 철도도서관은 직원 편의를 위한 순회문고 외에도 직원과 그 가족, 호텔과 열차의 이용객을 위한 순회문고도 운영하였다. 1936년 4월부터 실시된 교양문고는 전국 철도국 직원들의 현업 교육을 통한 업무개선과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장서는 주로 업무 관련 도서로 구성되었으며, 1937년에는 85개의 교양문고를 20일 단위로 순회하였다(배은선, 2017, 141; 김포옥, 1982, 78). 심전개발문고(心田開發文庫)⁹⁾는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순회문고인데, 철도도서관은 1936년 4월부터 심전개발문고 50상자를 신설하여 전 노선에 회송하였다. 심전개발문고 1호는 42책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본 민족종교인 신도 관련 18책, 종교일반 13책, 일본인 전기 등 신간서 11책 등으로 구성되었다(배은선, 2017, 141). 1936년 당시 1개월간 운영된 심전개발문고의 발송책수가 2,275책일 정도로 일제는 이 문고

a.org/wiki/%EB%82%A8%EB%A7%8C%EC%A3%BC%EC%B2%A0%EB%8F%84%EC%A3%BC%EC%8B%9D%ED%9A%8C%EC%82%AC

- 8) 철도국 또는 만철에서 순회문고를 언제 개시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관련연구 중 김포옥의 연구(1982, 70-72) 중 1925년도 철도도서관 장서수집표를 살펴보면, 순회문고용 장서수가 1924년에 비해 증가 및 제거된 수치가 있어 개시 시기는 적어도 1923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배은선(2017, 140)의 연구에서는 이 순회문고의 대출통계가 1922년 5월부터 집계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순회문고가 처음 개시된 것은 1922년 5월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1940-04-02)에서는 1922년 4월에 순회문고 회송을 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사(1921-09-29)에서 순회문고 재개를 보도하였으므로 최소 1921년부터 만철(사우회) 또는 철도국 순회문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9) 심전개발운동은 1930년대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고자 조선총독부가 입안한 일종의 계몽운동으로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총독부 학무국은 '국체관념(國體觀念)의 명징(明徵)', '경신숭조(敬神崇祖) 사상 및 신앙심을 함양할 것', '보은·감사·자립의 정신의 양성'을 심전개발 3대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8129>

에 대해 적극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김포옥, 1982, 78). 그리고 가정문고는 용산과 금정에 위치한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1936년 당시 760여 호가 존재하였는데, 300상자를 회송하여 도서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였다(배은선, 2017, 141-142).

철도도서관은 열차와 철도 호텔 이용객을 위해 열차문고와 호텔문고 등의 순회문고도 운영하였다. 열차문고의 시작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련보도(매일신보 1918-09-14)¹⁰를 근거로 하면, 적어도 1918년 이전부터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열차문고는 부산부터 중국의 신경(현 장춘), 봉천 및 경성 간 노선과 경성-청진 노선 등 30여 개의 직통열차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경성관리국에서는 31개의 문고를 약 30개 정도의 역구소(驛區所)에 발송하면, 각 역에서는 일주일에 1회씩 도서(1상자에 40책)와 잡지(20책 이내)를 송부받아 새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하였다(김포옥, 1982, 79). 이용객들은 열차 내 급사(직원)를 통해 열차문고 이용을 요청하여 1인 1회 1책을 대여하였다(매일신보 1922-09-04; 배은선, 2017, 142). 열차문고의 장서 내용은 잡지를 통해 확인되는데, 당시 경부선 한 열차에 비치된 잡지는 13책으로 개방(開放) 등의 시사물, 신소설, 통속적인 강담구락부(講談俱樂部)와 문예구락부(文藝俱樂部) 서적, 여성들을 위한 숙녀화보(淑女畫報) 등 대중적 자료가 중심이었다(매일신보 1922-09-04). 호텔문고는 철도와 연계된 부산과 신의주 철도호텔, 평양 철도호텔 등의 6개 철도호텔에 설치되었고, 총 6개의 문고본 상자로 운

영되었다(배은선, 2017, 142; 김포옥, 1982, 79).

③ 조선총독부 체신국과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

조선총독부 체신국(遞信局)도 소속 직원들을 위한 순회업무를 운영하였다. 초기에는 업무에 바쁜 전국의 통신업무 직원들로 한정하여 1921년경부터 순회문고를 실시하였는데, 조선내 각 우편국소를 수십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매일 서적을 배포하였다. 1938년경부터는 순회문고 대상을 전국의 체신업무 직원(우편, 예금 등)들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를 위해 도서 4천책을 추가로 비치하고 순회문고용 도서와 관내 대출용 도서로 구분하였다(조선일보 1921-09-23; 조선일보 1938-03-03).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인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는 수인을 대상으로 훈육과 교화를 명목으로 특별교육 실시, 시국 강연과 강화(講話),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암송, 라디오 강연 청취 등 황국신민화 교육을 강화하면서 순회문고도 설치하여 형무소 규정에서 허용하는 서적들을 상자를 구성하여 각 감방을 순회하면서 열람하게 하였다(매일신보 1938-07-22; 매일신보 1942-04-23).

2.1.2 지방행정기관

① 도(道) 단위

1916년 경기도는 처음에는 관내 각 학교 교사들의 요청에 대응하여 교육 관련 서적으로 구성된 교육 순회문고를 개설하였는데, 경비는 도 지방세에서 2백원을 사용하였고 우송료

10) 이 기사는 만철선 내 주요 열차에 종래 문고를 설치하여 1~2등 객실 이용객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는데, 최근 신간 도서와 잡지, 기타 자료를 추가하고 일반 이용객도 무료로 열람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는 구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매일신문 1916-02-11). 하지만 이 교육문고는 비용 등의 문제로 이용률이 낮았는데, 경기도는 1924년에 도서구입비를 증액하고, 교육도서 외에 일반 수양서적 등도 구입하여 20여개의 문고에 40-50책을 넣어 각 부군에 순차적으로 4개월씩 순회하게 하였다. 문고를 받은 각 부군은 관할 소학교에 배부하여 교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1924년 5월 중순경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조선일보 1924-04-24; 경성일보 1924-04-24). 또한 경기도는 도내 부군의 공의(公醫)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순회문고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조선일보 1940-03-10; 동아일보 1940-03-10).¹¹⁾

평안남도는 1921년부터 도와 산하의 부군, 면, 경찰서, 주재소(駐在所) 등 관공서 직원들의 지식 증진과 능력 향상을 위해 도 지방비로 순회문고(사회과 소속)를 설치하고, 1921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 평안남도훈령 제25호>를 통해 <평안남도 순회문고규정>을 제정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1921-06-24). 장서는 내외 정세, 법률, 수양 등에 관련된 도서¹²⁾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18권의 책으로 1개 상자를 구성하여 각 부군에 송부하면 각 부군에서는 1개월씩 열람한 후 다음 부군에 송달하도록 하였다(매일신문 1921-06-23). 그 후 평안남도는 순회문고 봉사대상을 지역주민까지 확대하고자 장서도 통속적인 주제를 포괄하였다(동아일보 1923-01-18;

매일신문 1925-11-24; 매일신문 1925-12-18). 평안남도는 또한 도내 각 학교 교원의 독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약 3,150책의 신간서적을 구비한 교육 순회문고(학무과 소속)로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용이 원활하지 않자 평안남도는 교육문고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교원이 희망하는 신간도서를 구입할 계획을 마련하였다(조선신문 1933-07-07).

충청북도는 도내 부군 지역의 청년과 주민, 관공서 직원의 독서열 고취를 위해 순회문고를 설치하였다. 이 순회문고의 장서는 약 6천원의 예산을 들여 법률, 경제, 문학, 상공업 등을 주제로 한 약 5천부 규모로 구성되었는데, 충청북도는 각 부군을 3개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순회문고를 배송하여 1개월씩 순차 열람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용이 저조하였으며 이용활성화를 위해 희망도서를 신속히 구입하여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매일신문 1923-01-10; 매일신문 1923-03-21).

충청남도는 문화향상과 사회교화를 위해 1924년부터 관내 각 군을 대상으로 한 순회문고를 설립하였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는 1924년 7월 1일 <조선총독부 충청남도도시 제56호>를 통해 <충청남도 순회문고규정>을 제정하고(조선총독부관보 1921-07-01), 일본에 서적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충청남도는 전체를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군별로 2개월간 순회문고를 운영하였다(매일신문 1924-06-28).

11)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경기도회(京畿道會) 질의과정에서 한 지방의원이 “각군에 도립의원을 세울 의사가 있느냐? 현재 군부(郡府)에 있는 공의(公醫)의 소질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의하자 경기도 위생과장은 “도시 농촌의 구별이 엄시 각처에 도립의원을 세우려는 의사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 공의의 소질향상에 관하여서도 순회문고, 연구회 등으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2) 1923년 당시 평안남도 순회문고의 장서 수는 총 583부이며, 정치/사회/법률 93부(部), 재정/경제 64부, 농업/공업/상업 127부, 교화/지방개량 145부, 역사/지리 68부, 잡서류 86부로 구성되었다(동아일보 1923-01-16).

경상북도는 1924년 3월부터 각 부군 공무원들의 지식 향상과 이를 통한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순회문고를 운영하였다(매일신보 1924-03-17; 경성일보 1924-03-19; 매일신보 1925-05-04). 이 순회문고는 행정, 법률, 교육, 산업, 정신수양, 사상 등에 관한 장서¹³⁾들로 구비되었는데, 초기에는 예산 1천원과 기증을 통해 잡지 89종과 도서 360여 책을 마련하였고 이후 48개 상자의 742책 규모로 확대되었다(매일신보 1923-06-26; 매일신보 1924-03-17; 매일신보 1925-05-04; 조선신문 1926-02-18; 매일신보 1927-06-16). 순회문고 운영지역은 1924년에는 대구부와 22군 1도(울릉도) 등 경북 전 지역이, 1925년과 1927년에는 대구부와 규모가 큰 11개군¹⁴⁾이 대상이었다(매일신보 1923. 06. 26; 매일신보 1924. 03. 17; 매일신보 1925. 05. 04; 조선신문 1926. 02. 18; 매일신보 1927. 06. 16). 이를 통해 경북 순회문고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회문고와 12개 주요 부군을 대상으로 한 순회문고로 이원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 부군마다 순회문고의 운영기간은 1.5~2개월 정도로 파악되었다(경성일보 1924. 03. 19; 매일신보 1924. 03. 17).

함경남도는 1936년 농촌진흥조합과 함께 농촌계몽을 목적으로 농촌 순회문고를 함흥 1개소, 수흥 1개소, 정주 4개소, 이원 1개소, 신흥 1개소 등 총 8개소에 설치하고자 하였다. 순회문고의 도서 수는 778책이었고, 이용자는 매일

4-50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이후 함경남도는 추가적으로 순회문고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추가적인 확인은 어려웠다(매일신보 1936-09-19).

평안북도 경찰부는 1939년 국경경비 경관의 위안과 수양을 위해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부터 신간 3천책을 지원받아 국경지역의 각 경찰서를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운영하였다(靑木修三, 1941, 11).

② 부군(府郡) 단위¹⁵⁾

부군 단위에서 순회문고 설치 움직임은 경기도 내 부군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성부 교육위원회는 1925년 위원들이 경성부 사회교육 발전 방안으로 제시한 소도서관 증설과 순회문고 설치 등의 안건을 심의할 주사위원(主査委員)을 선정하였다(조선일보 1925-11-29). 안성군청은 1925년 안성군 향교재산을 활용하여 도서관 설치, 서당교사 강습회 개최, 순회문고 설치 등을 계획하였고(동아일보 1925-05-11), 부천군은 농촌문화의 향상을 위해 향교재산을 경비로 하여 농촌 순회문고 설치를 준비하였는데, 취미, 문학, 산업, 종교 등의 서적을 구비하여 관내 각 면으로 순회할 계획을 수립하였다(조선중앙일보 1936-05-20; 동아일보 1936-08-05). 한편, 웅진군의 웅진경찰서는 1928년 경관들의 상식 수양을 위한 순회문고를 설치하기 위해 여러 농장들과 독지가

13) 1926년 당시 경북 순회문고의 장서 주제는 정신수양 127, 법률 80, 문학 8, 이과 51, 지력(地歷) 및 전기 85, 산업 135, 교육 및 사회사업 65, 기타 28책 등과 같이 문학과 어학류는 매우 적고, 산업과 법률 등의 장서가 많아 주민을 위한 순회문고의 장서구성과 차이를 보였다(조선신문 1926-02-18).

14) 칠곡, 성주, 선산,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안동, 군위 등.

15) 일제강점기 도 산하의 부군 등에서 운영 또는 계획되었던 순회문고에 관한 내용은 언론보도에서 대부분 간략히 보도되었고, 후속보도도 거의 없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들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였는데, 예상을 상회하는 금액을 모금하여 서적을 구입하고 정리하였다(조선신문 1929-01-15).

경상북도 달성군은 1924년 관내 각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지식 향상과 업무효율 증진을 위해 순회문고 운영을 준비하였는데, 면 근무직원 중 일본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감안해 선한문(鮮漢文, 국한문)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였다(매일신보 1924-05-06). 경북 봉화군 내성공립보통학교는 1926년 학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순회문고를 설치하고, 소요경비 약 50원은 위원 7인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시대일보 1926-01-30).

강원도 삼척군은 1927년 삼척면장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토의안건 중 순회문고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하였다(조선일보 1927-11-04).

2.2 민간에 의한 순회문고

일제강점기동안 민간에서도 순회문고를 매우 활발히 운영하였다. 민간에 의한 순회문고는 크게 일제와 일본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일제에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관변단체, 그와 반대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항일운동단체,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관련자료 부족으로 성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단체와 기독교와 천도교 등 종교단체 등으로 구분하였다.¹⁶⁾

2.2.1 일제 관변단체

일제 식민지배와 황국신민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거나 일제 행정기관 종사자나 일본인을 지원하던 관변단체들은 공직자와 지역주민의 친일의식을 강화하거나 공직자의 업무역량 강화와 편의증진을 위해 순회문고를 설치 또는 설치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22년 7월 22일에 설립된 경상북도 예천군의 예천교육회¹⁷⁾는 설립 당시 사업강령의 일부로 순회문고 경영을 포함하였다(동아일보 1922-08-01; 조선일보 1924-05-14). 일제 경찰을 지원하는 경찰협회¹⁸⁾ 황해도지부는 각 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설치하였다. 장서는 도서 수백권으로 구성되었는데, 매일 2-30책의 대출 신청되고 있어 순회문고를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황해도지부 산하 상동(上洞)지부는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축음기 7대를 준비하고 경찰서에 순회 대출하였다(조선신문 1924-06-15). 1930년에 창립된 친일 유교단체인 관동명덕회(關東明德會)는 청년단 지도를 강화하고자 군 단위의 강습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의 수양, 지식의 향상을 위해 21개군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순회문고를 개설하여 각 청년단 지도에 활용하였다. 관동명덕회가 조선총독부에 보고한 1939년 '주요 사업현황' 중 "청년의 식견을 향상시키기 위한 순회문고 63개 구입 및 순회 운동회 시행"을 통해서도 이 단체의 순회문고 실

16) 단체들의 성향 판단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사 관련 DB와 백과사전,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17) 예천교육회는 예천군의 사립학교와 사설학교 관계자들이 설립한 교육단체로, 적극적 친일단체로는 보기 어려우나 당시 언론보도에서 군교육회 회원모집 과정에서 공직자 이외의 조선인은 찬조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할 방침이라고 보도되어 일본인 중심의 교육단체로 판단하였다(조선일보 1924-07-21).

18) 조선경찰협회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조선 내 경찰관을 망라한 재단법인으로, 1921년 4월 25일 발회식을 갖고, 같은 해 6월 15일 정식 허가되었다(박찬승, 2011, 23).

시를 파악할 수 있었다(매일신보 1938-03-12; 매일신보 1938-08-31; 안세현, 2019, 129-132). 1940년에도 강원도에서는 청년층의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고자 순회문고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靑木修三, 1941, 12), 이 역시 관동명덕회가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1938년에 조직된 친일 전향자단체인 사상보국연맹(思想報國聯盟) 대구지부는 1939년 5월 28일 발회식을 개최하고 여러 의안을 심의하였는데 여기에 연맹원의 순회문고 설치 요망에 관한 건이 포함되었다(조선일보 1939-05-30).

2.2.2 항일운동단체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 단체들이 지역적으로는 조선 각 지역과 만주지역에서, 부문별로는 청년, 농민, 백정, 교사, 학생, 청소년 등에 의해, 이념적으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을 지향하며 다양하게 설립되었다. 당시 조선과 만주에는 도서관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설립된 도서관들도 일제의 직간접적 통제 속에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 계급 문제, 급진 사상 등을 다루는 자료들을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이 단체들은 소속 회원과 주민들의 교양 증진, 독립의지와 계급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순회문고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순회문고를 민족주의와 좌우합작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좌우합작 항일 단체와 계급해방과 사회주의를 지향한 혁신/사회주의계열 항일 단체로 나눈 다음, 그 수가 많은 혁신/사회주의계열 단체는 다시 그 수가 많은 청년운동단

체와 기타 단체로 구분하였다. 다만, 항일운동 단체의 순회문고 관련 기록은 당시 민족 언론의 보도기사들이 대부분인데, 이 기사들은 해당 단체의 활동 전반을 소개하면서 그 일부로 순회문고 설치 계획을 간략히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순회문고들이 실제로 운영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① 민족주의/좌우합작계열 항일 단체

1921년 7월 교육을 통한 민중의 실력 양성을 목표로 독립지사들이 설립한 조선교육학회는 유지 회원들의 회비로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향촌의 청년들을 위해 중학강의를 발행하는 한편, 순회강사 채용하고 순회문고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김자중, 2019, 44-45; 동아일보 1923-05-13; 조선일보 1923-05-14).

경상북도 안동군의 청년단체인 도산구락부(陶山俱樂部)¹⁹는 1925년 8월 1일 정기총회의 결의사항 중 하나로 “순회문고 설치에 관한 건”을 포함하였고, 같은 해 10월 27일 임시총회에서도 “순회문고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 “회원 및 일반유지(一般有志)에게 서적으로 동정(同情)을 얻되 실행방법은 집행위원회에 일임할 사(事)”라고 결의하였다(조선일보 1925-08-09; 조선일보 1925-10-31).

1926년 흥사단을 배경으로 창간한 잡지 동광(東光)은 잡지의 저변확대와 독자와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후원회 성격의 사우회(社友會)를 설립하였는데, 보통 사우(매년 회비 3원)와 영년유지사우(永年維持社友, 평생회비 일시납

19) 도산구락부는 일제강점기 안동군의 청년단체로, 신간회 설립을 위해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2010. 02. 11). 신간회 '안동지회 활동 문건' 무더기 발굴.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1/2010021100063.html

50원 이상)에게 잡지 제공, 사우 모임, 강연회, 순회문고와 같은 특전을 제공하였다(東光 제6호 1926-10-01).²⁰⁾

충청도 지역의 호서기자단²¹⁾은 1926년 10월 29일 제2회 충청남북도 기자대회를 개최하고 여러 사항을 결의하였는데, 그 중 순회문고 설치의 건이 포함되었다(동아일보 1926-11-02).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²²⁾는 1926년 11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우회규약(社友會規約)을 제정하였는데, 규약 내에 농민의 지식적 계발 및 단체적 훈련을 위해 농민 강습회와 독서회, 농민순회문고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조선일보 1926-11-30).

1927년 좌우합작에 기초하여 국내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창설된 항일 사회운동단체인 신간회(新幹會)²³⁾는 국내외에 지회를 설치하였는데, 여러 지회에서 회원들의 항일과 민족자주 의식을 고취하는 방편으로 순회문고 설치를 논의하였다. 신간회 구례지회(전남)는 1927년 6월 4일 설립대회에서 주요사항 토의안건에 순회문고의 건이 포함되었다(조선일보 1927-06-09). 신간회 울진지회(당시 강원)도 1929년 3월 16일 임시대회 토의사항에 순회문고 설치에 관한 건이 포함되었다(조선일보 1929-03-26). 신간회 홍성지부(충남)는 1928년

12월 18일 제2회 정기대회 결의사항 중 순회문고 설치를 포함시켰고(동아일보 1928-12-23; 조선일보 1928-12-28), 그 후 홍성지부 교육부가 순회문고 설치 준비를 마치고 곧 일반에 공개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동아일보 1929-08-14). 1929년 2월 7일 신간회 박천지회(평북)의 제1회 정기대회 결의사항에 “회원 자체교양으로 우선 순회문고 설치키로 함”이 포함되었다(동아일보 1929-02-11).

일제의 박해를 피해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도 동포들의 교양 증진과 항일의식 고취를 위해 순회문고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만주 길림성의 유지들은 독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동독사(同讀社)를 조직하고 사원을 모집하는 한편, 공동 독서를 위해 순회문고 설치를 핵심 과업으로 설정하였다(동아일보 1927-12-14). 만주 연길현 의란구(依蘭溝) 교양회는 문예부흥과 대중훈련을 위해 전 의란구를 망라한 순회문고를 창설하고자 순회연극대를 조직해 각지를 순회한 결과, 일반인과 유지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조선일보 1928-02-15), 1928년 3월 11일 임시대회에서는 토의사항에 순회문고 안건을 포함하였다(조선일보 1928-03-24). 1929년 만주에서 김좌진 등이 재만 한족의 정치적, 경제적 향상과 항일구국 완수를 위해 조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6236>

21) 이들은 충북지역 신간회 조직의 주축으로 참여하였다. 충북일보 (2012.11.26.). 1920년대 도내 항일운동, 신문기자가 주도했다. 출처: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61752>

22) 1925년 10월에 서울에서 조직된 농민운동단체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1973>

23)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因山日)을 계기로 일어난 6·10만세운동 이후 국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 타협에 의해 조직되어 1927년 2월부터 1931년 5월까지 존속하였다. 신간회는 전국과 일본 동경 등에 120~150여 개의 지회와 2~4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일제강점기 최대 항일 사회운동단체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B%A0%EA%B0%84%ED%9A%8C&ridx=0&tot=3990>

직하였다가 1930년 7월에 해체된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는 사업의 일부로 순회문고 설치를 포함하였다.²⁴⁾ 만주 하얼빈의 고려구락부(高麗俱樂部)는 1931년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사업계획에 지방 순회문고 설치를 포함하였다(조선일보 1932-01-19).

② 혁신/사회주의계열 단체 - 청년운동 단체
일제강점기에 혁신/사회주의계열의 청년운동 부문에서는 순회문고가 매우 활발히 추진되었다. 3·1운동 이후 항일운동이 활발해지고 전국에서 청년단체가 급증하자, 이들의 지도기관으로써 민족주의 성향 지식인 중심의 조선청년회연합회가 1920년 12월에 창립되었다. 하지만 민족주의계열의 실력양성론에 대한 반발과 협의체/연락기구 수준의 연합회에 대한 회의, 사회주의 사상 유입 등으로 청년운동 내 갈등이 고조되었는데, 서울청년회 등 사회주의계열 단체들이 1923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를 개최한 후 청년운동의 중심은 무산계급운동으로 이동하였다.²⁵⁾ 이런 흐름 속에서 1924년 4월 사회주의에 기반한 청년운동 조직인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이후 조선청년총동맹은 일제의 탄압과 조선공산당사건 관련 간부들의 체포 등으로 활동에 큰 제약을 경험하고 1927년

2월 좌우진영이 참여한 신간회가 출범하자, 시대흐름에 맞춰 전민족적 청년운동으로 변모하였다. 각 지역의 여러 청년단체들도 해산 후 도-부군별 단일 청년동맹 체제로 개편하였고, 그 아래 읍면 단위의 지부와 리 단위의 반을 두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1, 225-227).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의 청년동맹 등 청년단체들은 항일과 계급혁명의 이념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순회문고를 적극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된 순회문고 사례 중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연합 청년조직들이 추진한 순회문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24년 4월 24일 조선청년총동맹 제1회 임시대회에서 가결된 토의사항 중 교양문제에 “강연회, 담서회, 연구회, 강습회, 잡지, 팜플렛, 리플렛, 순회문고, 연극 등으로써 청년의 계급적 자각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의 모든 문제와 사상을 충분히 알도록 함”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동아일보 1924-04-25). 1925년 8월 7일 서울청년회, 경성여자청년회, 경성노동청년회 등 사회주의 계열의 12개 청년단체가 결성한 경성청년연합회²⁶⁾는 같은 해 8월 8일 제1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중 하나로 “순회문고와 순회강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동아일보 1925-08-12; 조선일보 1925-08-12). 경성청년연합회는 1925년 11

2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발행년불명]. 출처: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totalCount=1&itemId=hdsr&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hdsr_004_0030_0010_002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A0%81%EC%83%89+%EC%88%9C%ED%9A%8C%EB%AC%B8%EA%B3%A0&searchKeywordConjunction=AND#hdsr_004_0030_0010_0067_commen;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행년불명].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6499&cid=46623&categoryId=46623>; 세계한민족문화대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localCode=krcn&contentsId=GC05305260>

25)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발행년불명]. 출처: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o402900&code=kc_age_40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2586>

월 29-30일에 청년운동의 분열을 정리하고자 개최한 경성부근청년운동자대회에서 토의안건 중 하나로 “3. 교양에 관한 건” 내에 무산계급 교양에 적당한 책자의 간행에 관한 건과 순회문고 설치에 관한 건을 포함하였다(동아일보 1925-11-19). 1925년 8월 1일 경성여자청년동맹 등 경성의 10개 단체들로 설립하였다가 이후 17개 단체까지 확장된 한양청년연맹(漢陽靑年聯盟)이 발표한 결의사항 중 하나로 순회문고 설치가 포함되었다(조선일보 1929-02-08).²⁷⁾ 황해도 민중운동자들은 1925년 1월 28일 황해도 민중운동자 제1회 간친회(懇親會)를 열고 각 부문 운동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그 중 사상운동과 관련해 “나. 각지가 협력하여 사회과학에 관한 순회문고를 설치하며 적당한 지방에 사회과학의 강습과 강좌를 수시 개최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조선일보 1925-01-30). 이후 그들은 1925년 3월 3일 황해도민중운동자연맹을 설립하면서 순회강연, 순회문고 설치 등을 결의하였다(동아일보 1925-03-09). 1925년 3월 23-24일 전남지방청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결의사항 중 청년문제와 관련해 “순회문고, 강좌, 독서회, 강연회, 도서 비치 등을 실시하며 각종의 전투 잡지를 구독케 하여 사회과학의 지식을 구비할 것” 등과 같이 결의하였다(동아일보 1925-03-28; 조선일보 1925-03-29).

부군 또는 그 이하 지역 단위의 청년단체에서도 순회문고 설치를 적극 검토하였는데, 이들도 앞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 단체의 결의사항, 토의사항, 사업계획 중 하나로 나타나 실제 설치 여부는 거의 대부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순회문고 사례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²⁸⁾

혁신/사회주의계열 청년단체의 순회문고 설치 움직임은 만주지역에서도 포착되었다. 만주 안동현(安東縣)의 국경청년연맹은 1925년 10월 18일 창립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청년문제와 관련한 내용 중 청년교양의 건에는 “순회문고를 설치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조선일보 1925-10-20). 만주 길림성 동강현(東江縣)의 남만청년총동맹(南滿靑年總同盟)은 1925년 11월 18일 창립총회의 결의사항 중 교양사업과 관련하여 순회문고 설치를 포함시켰다(조선일보 1925-12-11).

③ 혁신/사회주의계열 단체 - 기타

일본의 특수부락민 신분해방운동 단체인 수평사(水平社)에 영향을 받아 1923년 경남 진주에서 백정(白丁)의 신분해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형평사(衡平社)와 관련된 단체에서도 순회문고가 논의되었다. 1929년 4월 20일 경성부 조선형평사 본부에서 조직된 <형평청년전위동맹>²⁹⁾의 창립대회에서 채택된 이 단체의 운동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1821>

28) 지역 청년회는 명칭만으로 조직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조선일보 뉴스라이브러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역 언론사 등에서 관련자료들을 찾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면, 동일청년회는 관련 기사에는 유물론자의 사회관, 청년운동, 여성 및 백정 해방 등의 내용이, 흥원학우회는 관련 기사에서 노동학원, 농촌야학, 여성교육, 동맹휴업 등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영광군 토우회는 영광신문(<http://www.ygnews.co.kr>) 기사를 통해 영광군에서 활동하던 항일단체임을 발견하였고, 신인동맹회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1922년 서울에서 조직된 사회주의운동단체임을 확인하였다.

29) 이 단체는 조선형평사 주도의 형평사 운동이 봉건적 인권해방운동을 추구하면서 일반 무산대중과 빈번하게 충돌하자, 무산대중과 제휴하여 자본주의 타파와 공산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별도 설립되었다(고숙화, 1995, 152-153).

〈표 2〉 일제강점기 혁신/사회주의계열 청년단체들의 순회문고 설치(계획 포함) 관련 사항

지역	추진단체	순회문고 설치(계획 포함) 사항	출처
경기	서울청년회	1925-01-11 제4회 정기총회 및 1925-05-13 제5회 정기총회 결의	동아일보 1925-01-14 조선일보 1925-05-16 동아일보 1925-05-18
	중앙노동청년회	1925-08-26 창립총회 결의	조선일보 1925-08-28
	경성무산청년회	1925-12-05 제5회 집행위 결의	조선일보 1925-12-08 동아일보 1925-12-09
	경성청년회	무산청년들의 사회적 교육과 정치사상적 훈련을 위해 순회문고와 도서 종탑소 등의 설치 추진	조선일보 1926-01-09 동아일보 1926-01-09
	인천청년회	1925-11-02 창립총회 결의	동아일보 1925-11-06
	고양군 신인동맹	1926-03-25 제5회 집행위원회 결의	조선일보 1926-03-28
강원	춘천청년회	1927-08-10 혁신총회, 1927-08-11 제1회 집행위 토의	조선일보 1927-08-16
충남	당진청년동맹	1928-01-28 창립대회 토의	동아일보 1928-02-02 조선일보 1928-02-04
	홍성청년회	1928-12-23 제2회 정기대회 결의	조선일보 1928-12-18 동아일보 1928-12-30
경북	영덕군 청년연맹	1928-01-15 남형면지부 설치대회 결의	조선일보 1928-01-24
	봉화청년동맹	1928-03-11 제1회 정기총회 통과	조선일보 1928-03-15
	상주청년동맹	1928-04-21 외서지부 제2회 정기총회 결의	조선일보 1928-03-27
	영주청년동맹	1929-02-23 제2회 정기대회 건의안(영주군)	조선일보 1929-02-28
		1928-04-14 회의 안건(평은지부)	조선일보 1928-04-24
1929-01-18 제2회 정기대회 토의(영주지부) 1929-01-26 제3회 정기대회 토의(이산지부) 1929-04-12 설치대회 토의(순흥지부)		조선일보 1929-01-26 조선일보 1929-01-31 조선일보 1929-04-17	
경남	경남 청년연맹	1925-11-28~29 창립총회 의안 토의	동아일보 1925-12-03
	오월청년동맹	1929-03-24 제4회 정기총회 가결(울산 동면)	조선일보 1929-03-29
	밀양청년동맹	1929-05-20 제13회 집행위, 1929-08-01 집행위 결의	조선일보 1929-06-26 조선일보 1929-08-06
전남	완도무산청년회	1925-02-28 임시대회 결의	조선일보 1925-03-08
	구례청년당	1925-09-06 창립총회 결의사항	동아일보 1925-09-12
	구빙노동회	1926-03-14 창립총회 결의(구례군)	조선일보 1926-03-20
	우치노동청년회	1925-10-26 제1회 정기총회 결의(광주)	조선일보 1925-10-29
	화순청년연맹	1926-09-28 제2회 중앙집행위 결의	동아일보 1926-10-06
	영광군 토우회	1927-03-20 창립총회와 제1회 집행위 결의	동아일보 1927-03-24 동아일보 1927-03-25
	영광여성동맹	1928-05-04 제2회 임시대회 사업계획에 포함	조선일보 1928-05-09
	남원청년동맹	1927-12-10 제2회 위원회 논의	동아일보 1927-12-14
황해	재령청년연맹	1926-12-03 창립총회 결의	동아일보 1926-12-06
평북	소림청년회	1927-07-?? 임원회의, 1927-08-20 위원회 회의, 1930-08-?? 지방 유학 생과의 간친회 등에서 논의(영변군 소림면)	중외일보 1927-07-31 동아일보 1927-08-27 조선일보 1930-08-27 조선일보 1931-06-17
평남	평양청년동맹	1925-11-05 임시총회 결의	조선일보 1925-11-08
함북	동일청년회	1927-08-08 제12회 정기대회 토의(경성군 어랑면)	조선일보 1927-08-17
	온성청년동맹	1929-02-23~24 제3회 정기대회, 1929-03-08 제3회 집행위 토의	조선일보 1929-03-06 조선일보 1929-03-13

지역	추진단체	순회문고 설치(계획 포함) 사항	출처
	신고산청년회	1925년 청년회관 내 민중교양 위한 도서실(도서 100종) 설치 후 농촌순회문고 계획(안변군)	동아일보 1925-02-21 조선일보 1925-03-17
	용진청년회	1925-12-25 창립대회 결의(영흥군)	조선일보 1926-01-10
	북청청년회연합회	1925-12-26 특별총회 결의	조선일보 1925-12-31
	북청청년연맹협회	1926-02-21 제3구 지방대회 결의	조선일보 1926-02-26
	홍원학우회	1927-08-14 창립총회 토의	동아일보 1927-08-19
함남	북청청년동맹	1928-01-08 창립대회 운동방침, 1928-01-09 제1회 집행위 결의	동아일보 1928-01-15
		1928-01-25 양화지부 설치총회 결의	동아일보 1928-01-18
		1928-02-05 신포지부 설치대회 결의	조선일보 1928-01-30 조선일보 1928-02-01 동아일보 1928-02-01 조선일보 1928-02-12 조선일보 1928-02-13 조선일보 1928-02-15
	홍원청년동맹	1928-02-21 용원면 제2지부 창립대회 토의 1928-02-25 용원면 제2지부 집행위원회 결의 1929-07-27 용원면 제1지부 집행위원회 토의 1929-12-15 용원면 제1지부 임시총회 토의	동아일보 1928-02-28 조선일보 1928-02-29 조선일보 1928-03-02 조선일보 1929-08-03 조선일보 1929-08-07
	덕원군 청년연맹	1927-10-16 임시총회 논의	동아일보 1927-10-20
	단천청년동맹	맹원 교양을 위해 순회문고를 설치함(이중면 지부)	조선일보 1930-01-09

방침 10개항 중 “주의 서적에 의하여 순회문고를 설립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전위동맹 주도자들은 1930년 4월 23일경 조선형평사 본부에서 비밀결사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결의한 사항에도 “순회문고를 설치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숙화, 1995, 152-153).

제2차 간도공산당사건³⁰⁾ 관계자들도 순회문고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만주총국 간부들은 조선인의 조직화를 위해 합법적 표면운동 차원에서 문맹퇴치와 농민 교양운동에 주력하고자 정치강습회, 순회문고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그들은 공산주의 선전을 위해 순회문고를 이용하여 만주일대를

이동하며 청년들에게 선전하며 당세를 확장하려고 시도하였다(조선일보 1930-05-01; 조선일보 1931-01-30; 동아일보 1931-01-31).

1932년 2월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사범학교 교유(중등교사)와 사범학교 생도 등 40명 이상이 연루된 ‘적색 순회문고’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 사건은 1년 전 대구의 전위조직동맹(前衛組織同盟) 사건으로 대구사범학교 생도들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교유 현준혁이 소장한 많은 서적을 학생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적색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내부에 마르크스 과학연구부 등을 설치한 것을 일제가 처벌한 사건³¹⁾이다(조선일보 1932-02-22; 매일신보 1932-02-23; 조

30) 일명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사건” 또는 “간도 공산당 사건”은 1927~1930년에 3차례에 걸쳐 간도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일제에 의해 검거된 사건을 말한다. 위키백과 [발행년불명].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A%B0%84%EB%8F%84_%EA%B3%B5%EC%82%B0%EB%8B%B9_%EC%82%AC%EA%B1%B4

선일보 1932-04-01; 매일신보 1932-04-01; 조선신문 1932-04-13; 조선일보 1932-04-14).

조선민중의 해방을 목적으로 서울에서 조직된 <해방운동사(解放運動社)>는 창립식에서 사업 내용의 일부로 순회문고와 도서종람소 설치 등을 결의하였다(조선일보 1924-07-22; 동아일보 1924-07-22). 서울의 광활소년회(光活少年會)는 1930년 4월 29일 제4회 정기대회에서 순회문고 설치를 포함한 여러 사안을 토의하였다(조선일보 1930-05-01). 전라북도의 사상단체인 전북 병인지우회(全北丙寅知友會)³²⁾는 1926년 4월 3일 개최한 제1회 임시대회에서 순회문고 설치의 건을 비롯한 여러 사안들을 토의하였다(조선일보 1926-04-06). 전라북도 전주의 제과노동조합은 1927년 9월 15일 회의를 열고 여러 사항을 토의하였는데, 그 중 간이 순회문고 설치가 안건에 포함되었다(동아일보 1927-09-19).

2.2.3 기타 단체 및 종교 단체

민간에 의한 순회문고 중 관변단체와 항일운동단체 이외에 정치적 성향이 거의 없거나 자료 부족으로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한 순회문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창녕군의 창녕청년회는 1923년 4월 1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순회문고 개설의 건이 포함된 사항들을 결의하였다(동아일보 1923-04-27). 충청남도 당진군 범천면의 범천

청년회는 1926년 2월 27일 창립총회에서 순회문고 설치의 건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결의하였다(동아일보 1926-03-03).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내화리의 내화독서회는 1926년 4월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관설치와 함께 순회문고 설치를 결의하였다(조선일보 1926-04-22). 전라남도 영광군의 과학연구회는 1927년 9월 30일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여러 사항을 결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순회문고를 설치하되, 당해 연도에는 연구 및 참고서적을 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조선일보 1927-10-05).

종교단체의 순회문고 중에서는 조선성교사회(조선예수교회서)³³⁾의 순회문고가 가장 빠른 시기에 운영되었다. 1912년 이 단체는 영국 전도문서협회의 재정협조를 받아 교역자문고를 만들어 전국의 목회자 등에게 1원(원 가격은 10원 상당)에 판매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선교 목적으로 기독교 여성들을 위한 순회문고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순회문고의 장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생활에 관한 도서들이 위주였지만, 질병예방과 위생, 자녀양육법 관련 책들도 포함하여 여성의 근대적 생활방식을 소개하고 계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홍승표, 2020, 242). 그리고 평안북도 선천군 천도교 청년당은 순회문고 설치를 준비하여 기증받은 수십 권의 사상서류와 경제서류에 더해 추가로 기백권의 서적을 구비하고 일반에 순회 종람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동아일보 1926-09-29;

31) 이 사건에서 현준혁 등 7명만 치안유지법,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불기소(1명)되었다.
 32) 병인지우회는 1926년 1월에 창립된 사회주의 성향의 항일 사상단체로 파악된다(원도연, 익산지역 독립운동과 문화·언론운동, 익산지역 독립운동과 3·1운동의 재조명, 2019.10.12.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제1회의실).
 33) 이 단체는 1889년 10월 서울에서 언더우드 목사 사택에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사들의 비공개회합에서 출발하여 1890년 6월 25일 조선성교사회(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로 창설되었다(이장식, 1984, 16-27).

매일신보 1926-09-30). 그리고 외국 출신인 하마련(河瑪蓮) 선교사는 신문 투고를 통해 자신이 전도를 하는 한편으로 농촌발전을 위해 교회학교와 어린이 구호소, 소규모 순회문고 등을 설치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조선일보 1933-01-08).

2.3 공공도서관

부산도서관은 경상남도 부산부의 사립 부산교육회³⁴⁾가 1911년 5월 일본 흥도회 부산지부가 운영하던 도서실 시설과 장비를 인수하고 용두산 중턱에 도서실 건물을 신축하여 1919년 4월 부산부로 이관하기 전까지 운영한 사립도서관(김영석, 이용재, 2018)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순회문고를 한층 강화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순회문고 책임자 지정을 위해 담당자가 1918년 8월 5일 학교와 단체들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고,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도 도서관 목록을 제공하도록 이발업과 목욕탕업 조합장들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순회문고의 1일 열람자는 적어도 60-7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조선일보 1918-08-06).

대구부립도서관은 무료하고 독서 욕구에 굶주린 상이군인³⁵⁾을 위한 순회문고를 운영하였

다. 당시 언론보도(부산일보 1939-08-17)에 따르면, 이 순회문고는 1조 50책 단위로, 수양, 오락, 전쟁이야기 등의 신간서적을 구비하여, 매월 1회 교체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부립도서관의 당시 예결산 자료(大邱府, 1939)를 검토한 결과, 순회문고 항목이 1939년에 300원이 계상된 것 외에 다른 해에는 찾을 수 없어, 상이군인을 위한 순회문고는 1939년 1회에 한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향교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던 강원도 삼척도서관(사립)은 도서관 건물이 협소하여 옛 등기소 건물로 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취미 증진을 위해 순회문고를 1927년부터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조선일보 1927-04-20).

3.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특징

3.1 설치시기

일제강점기 국내에 최초로 순회문고가 도입된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순회문고는 1912년경 조선성교서회가 기독교 여성들을 위해 만든 순회문고였고, 관에서 운영한 최초의 순회문고는 1916년 경기도가 관내 교사들

34) 1907년 2월 부산 거주 일본인을 위한 교육사업을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부산 거주 일본인에게 자금심과 함께 제국신민으로서 우월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명사 강연회, 통속강연, 실업야학교, 도서관 운영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1910년부터는 부산 거주 일본인과 조선인 일반을 위한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이송희, 2005, 213; 김혜진, 2019, 54).

35) 이 순회문고의 대상은 1937년 7월 7일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으로 촉발된 중일전쟁 시기에 동원된 대구 거주 상이군인으로 추정된다. 일제는 식민지배 후 '신성한 황군을 더럽힌다'며 조선인의 군 입대를 허용하지 않다가 중일전쟁 발발 직후 1937년 12월 <조선인 특별지원병제>와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여 조선인들을 전장으로 내몰기 시작했는데, 이 순회문고가 1939년 후반기부터 실시되었으므로 중일전쟁에서 다친 조선인과 일본인 상이군인이 주 대상으로 보인다.

을 위해 운영한 교육 순회문고로 나타났다. 그 이후 1918년 사립 부산도서관의 순회문고와 만철의 열차문고, 1921년에 재개된 만철의 순회문고, 1921년 평안남도 순회문고와 조선총독부 체신국의 순회문고, 1923년 충청북도 순회문고, 1924년 경상북도 순회문고와 경북 달성군 순회문고, 충청남도 순회문고 등이 운영되었는데, 주로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들이 순회문고를 설치하였다. 민간에서 순회문고(계획 포함)는 1912년 조선성교서회의 순회문고 이후 1923년 경남 창녕군청년회 순회문고와 조선교육학회,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과 경북 예천교육회, 황해도 경찰협회 등에서 설치하거나 설치계획을 수립되었다. 민간단체 중 항일운동 단체들의 순회문고는 1923년 이후부터 설치 또는 설치 논의를 시작하였고, 특히 혁신/사회주의계열 청년단체들이 1925~1930년에 집중적으로 순회문고 설치를 논의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는 1918년 부산도서관 순회문고와 1939년 대구부립도서관에서 설치하였고, 1927년에는 삼척도서관이 순회문고 설치를 계획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순회문고는 1912년경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지만 순회문고가 활발히 설치된 것은 1920년대였다. 관의 순회문고 중도 단위와 부군 단위의 지방 행정기관의 순회문고는 대부분은 1920년대 전반부에 집중 설치되었는데, 이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정책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되고, 일제가 도서관정책에 최초로 착수하고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도 지방비에 의한 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김남석, 2001, 5-6). 민간단체 중 항일단체의 순회문고들도 거의 대부분이 1920년대에

설립 또는 설립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역시 일제의 정책 변화와 도서관 설치 확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혁신/사회주의계열의 청년단체들은 1924년 121개 청년단체 대표가 참석한 조선청년총동맹 임시대회에서 청년의 계급적 자각과 사회사상 전파를 목적으로 순회문고 설치를 결의하고 1927년 신간회 출범 이후 도-부군의 단일 청년동맹 체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여러 도와 부군, 면 단위의 동맹지회와 지부 등에서 순회문고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민족주의/좌우합작계열에서도 대부분 1920년대에 순회문고 설치에 관한 논의가 집중되었는데, 특히 신간회 소속 지부들은 1927~1929년에 전남 구례지회, 강원 울진지회, 충남 홍성지부, 평북 박천지회 등에서 순회문고 설치를 추진하였다.

항일단체의 순회문고 관련 논의는 1931~2년 이후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1932년 대구사범학교 교원과 학생 등 40명 정도가 참여한 이른바 적색순회문고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반면, 여러 행정기관(총독부, 평남, 경북, 함북 등)과 관변단체(사상보국연맹, 관동명덕회 등)의 순회문고 활동은 그 시기에 상당히 왕성하게 나타났다. 이는 1931년 일제의 9·18 만주침략 이후 조선주둔 일본군을 2개 사단에서 5개 사단으로 증가시켜 탄압무력을 강화한 후 시행된 한국민족말살정책과 황국신민화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있다고 보인다.³⁶⁾ 만일 이 시기에 항일단체의 순회문고 관련 활동들이 발생하였더라도 민족주의 성향의 신문과 잡지들이 강제 폐간되어 언론기사 등 기록이 남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3.2 설치목적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설치(계획 포함) 목적은 기본적으로 순회문고를 운영한 기관과 단체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었다.³⁷⁾ 당시 일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민간단체 중 일제 관변단체, 그리고 일제의 지방행정기관이 운영하거나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립과 사립 공공도서관 등에서 운영한 순회문고는 <표 3>과 같이 일제 행정기관 직원의 지식/교양 증진을 통한 업무효율의 향상, 직원(가족 포함)의 복지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 친일외식 고취와 황국신민화 강화, 주민 대상의 독서열 고취와 문화향상, 사회교육 제공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 외에도 열차나 철도호텔 이용객의 편의, 교도소 수용자의 교화, 학생들의 교육 지원, 장서량이 부족한 부립도서관 지원 등의 목적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들 기관과 단체,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순회문고의 장서를 통해 파악되는데, 일제에 관한 서적 위주로 구성된 심진개발문고 이외에도 관공서 직원들의 지식함양을 위

한 순회문고도 실무 관련 서적 외에 일제의 시각이 투영된 내외 정세와 사상 관련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고, 교화를 위한 교도소 순회문고에서도 총독부의 규정에서 허용된 서적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일반 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순회문고의 서적도 행정기관과 관변단체, 공공도서관 등이 선정하므로 자료의 선정은 일제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항일운동단체가 설치(계획 포함)한 순회문고도 이 단체들의 설립목적³⁸⁾과 일치하도록 항일외식 고취를 통한 민족의 자주와 독립, 그리고 당시 사회주의의 파급으로 인한 무산계급의 해방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등을 지원하기 추진되었다. 운영 목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원들의 교양 증진과 사회과학 및 사회사상 인식의 강화, 농민 등 민중과 청년의 계급해방과 독립 의식 고취 등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 민중과 청년의 독서편의 증진,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 지원, 사우회(후원회) 참여의 혜택 등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항일단체들이 활발히 순회문고를 운영한 것은 순회문고가 일제가 금지, 탄압하는 항일독립과 계급혁명에 관한 서적을 단체 회원과 지역 민중과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6) 이 시기에는 한국어 말살, 한국어 신문과 잡지의 폐간,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강요 등이 실시되었고, 1937년 중일 전쟁 도발 이후에는 징병과 징용 등을 통한 인력 징발과 경제수탈이 만연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7318>

37) 김남석(1991, 36-40)은 일제강점기 청년단체의 도서관(소규모 문고 포함) 설립 목적으로 1.청년단체의 성원과 지역주민의 교양과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도서관 설치 활동 2.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필요시설로 도서관 설치 활동 3.청년단체의 성원과 지역주민의 자기교육과 자유교육, 우리글의 바른 이해를 위한 장 4.청소년의 유일한 지도기관으로 도서관 설치 5. 학교교육의 연장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도서관 설치활동 등으로 파악하였다.

38) 당시 항일 또는 혁신 단체들의 강령을 살펴보면, “아등은 조선의 해방을 기함. 아등은 무산계급의 이익에 합당한 사회질서의 실현을 기함”(서울청년회), “민중본위의 합리적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통제있는 훈련을 기함”(인천청년회), “사회진화, 민중본위의 사회실현, 민중해방”(황해도민중운동자연맹), “무산계급의 계급의식을 환기하여 그 역사적 사명의 수행을 조성함”(국경청년연맹),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기한다”(형평청년전위동맹) 등과 같다.

〈표 3〉 일제강점기 순회문고 운영(계획)의 주요 목적 비교

유형	순회문고 운영(계획)의 주요 목적	해당 순회문고
일제 기관 또는 일제 친화적 기관/단체 (관, 관변단체, 공공도서관 등)	관공서 직원의 지식/교양 증진을 통한 업무효율의 향상	총독부 체신국, 총독부 철도국(순회문고/교양문고), 경기도(교사/공의), 평안남도(관공서직원/교사), 경상북도, 경북 달성, 경기도 용진(경찰)
	관공서 직원(가족)의 복지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	총독부도서관(국경수비대), 총독부 철도국(가정문고), 평안남도(교원), 평안북도(국경수비대), 대구부립도서관(상이군인), 경찰협회(황해도)
	친일외식 고취와 황국신민화 강화	총독부 철도국(심전개발문고), 총독부 서대문형무소(춘천지소), 사상보국연맹(대구, 추정 ³⁹⁾), 관동명덕회(강원, 추정 ⁴⁰⁾)
	주민대상 독서 장려, (농촌)문화향상, 사회교육	충청북도, 충청남도, 함경남도, 경기 경성(교육위), 경기 부천, 경기 안성, 강원 삼척(면장회의), 부산도서관, 삼척도서관, 예천교육회
	이용객 편의 제공	총독부 철도국(열차문고, 호텔문고)
	수용자 교화	총독부 서대문형무소(춘천지소)
	학생 교육 지원	경북 봉화(내성보교)
	부립도서관 장서 지원	총독부도서관
항일 또는 계급혁명 지향적 단체 (항일 단체)	회원/조직원들의 교양 증진 및 사회과학/사회사상 인식 강화	황해도 민중운동자 간친회, 서울청년회, 원도무산청년회, 전남청년대회, 구례청년당, 평양청년동맹, 남만청년총동맹, 북청청년회연합회, 구례노동회, 춘천청년회, 재령청년연맹, 전주제과노조, 봉화청년동맹, 상주청년동맹(외서지부), 한양청년연맹, 용진청년회, 형평청년전위동맹,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신간회 박천지회, 동독사 등
	민중/청년의 계급해방/항일독립 의식 고취	조선청년총동맹, 경성청년연합회, 신고산청년회, 경성청년회, 흥원청년동맹(용원제2지부), 도산구락부, 조선농민사, 의관구 교양회, 고려구락부
	민중/청년의 독서편의 증진	광주 우치노동청년회, 인천청년회, 소림청년회, 신간회 홍성지부, 한족총연합회
	학생 교육 지원	조선교육학회
	사우회(후원회) 혜택	동광(잡지사)
	알 수 없음	호서기자단, 신간회 구례지회
	주민대상 독서편의 제공	선천군 천도교 청년당, 하마련 선교사
기타/종교 단체	종교활동 지원	조선성교서회
	알 수 없음	창녕청년회, 법천청년회(당진), 내화독서회(문경), 과학연구회(영광)

기타 단체와 종교 단체의 순회문고 운영목적은 언론 기사의 분량이 제한적이고 다른 정보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확인 가능한 3곳은 종교활동 지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독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39) 이 단체의 정식명칭은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이며, 강령으로는 내선일체(內線一體)의 강화, 반(反)국가적 사상의 격멸, 국책협력·전시협력의 강화 등을 내세웠고, 군인원호 행사, 신사참배, 시국강연회, 현금각출 등 노골적인 친일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순회문고의 성격을 추정하였다. 두산백과사전 [발행년 불명],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7842&cid=40942&categoryId=33384>

40) 이 단체가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청년층 시국 인식 고취를 위한 지나사변(중일전쟁) 1주년 기념 청년 강습회 개최, 군 지부 청년단 총회 및 강습회 개최를 통해 총후 황국청년(銃後 皇國靑年)의 신념 고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청년의 식견 향상을 위한 순회문고도 결국은 황국신민화를 위한 목적으로 파악되었다(안세현, 2019, 129-132).

3.3 봉사대상과 봉사권역

봉사대상과 관련하여 관에서 운영한 순회문고는 첫째, 관공서 직원(가족 포함)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써, 소속 직원 전체를 포괄하는 순회문고와 국경수비 경관, 상이군인, 경찰, 교사, 공의 등 한정된 직원들만 포괄하는 순회문고로 구분되었다. 둘째, 일반 주민까지 대상으로 한 순회문고에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열차나 철도호텔 이용객, 교도소 수용자 등 한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구분되었다. 민간의 순회문고는 해당 단체 구성원을 봉사대상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농민과 청년 등 지역 주민까지 봉사대상에 포함한 경우로 나타났다. 그 외 민간단체가 특정 봉사대상을 위해 순회문고를 운영한 경우도 존재하였는데, 여기에는 지역의 경찰, 청년단, 잡지사 사우회, 기독교 여성, 특정 고교 학생 등이 포함되었다.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순회문고는 지역주민과 상이군인 등을 봉사대상으로 하였다.

봉사권역에 있어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진 순회문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들의 순회문고들이었다. 총독부도서관의 부립도서관 지원을 위한 순회문고는 경성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신의주와 함흥, 남으로는 목포와 부산까지 전국 10개 도시를 지원하였고, 철도국 순회문고 중 직원들을 위한 순회문고와 교양문고, 심전개발문고, 철도이용객을 위한 열

차문고(만주 일부 포함), 그리고 체신국의 순회문고 등도 전국을 범위로 운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경(국경수비대)이나 만주 지역(조선공산당만주총국)과 같이 여러 지역들을 포괄하여 운영된 순회문고와 평안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과 같이 도 단위로 운영된 순회문고를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경성, 부산 등 부군 단위와 만주 지역의 현(봉천성 안동현, 길림성 동강현) 단위로 운영된 순회문고와 읍면 단위의 순회문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리 단위(내화리의 내화독서회 등) 순회문고도 일부 설치(계획)되었다. 그리고 가장 좁은 봉사권역은 특정 교도소나 특정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순회문고로 파악되었다.

3.4 운영방식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운영방식을 파악하려면 관련 자료들이 풍부해야 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단체(항일단체)의 순회문고 관련 자료는 주로 신문기사들로, 순회문고 관련 내용은 매우 간략한 형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보, 언론보도, 학술논문 등 관련 자료가 상대적으로 충부한 충청남도와 평안남도, 평안남도 진남포부, 그리고 각 도에서 운영한 순회문고를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살펴보았다.⁴¹⁾

첫째, 순회문고 운영비는 관의 경우, 세금을 위주로 하면서 다른 자금도 일부 활용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자체예산과 기증이 위주였다. 관의

41) 평안남도 순회문고규정(조선총독부 평안남도훈령 제25호, 1921년 6월 20일)과 충청남도 순회문고규정(조선총독부 충청남도고시 제56호, 1924년 7월 1일)은 최초 제정된 규정만 관보에 게재되었고 이후 개정 여부와 개정 규정 등은 관보나 언론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진남포부 순회문고 규정은 매일신보(1925-12-18) 보도에 소개된 것을 정리하였다.

순회문고 중 총독부도서관의 국경수비대 순회문고는 세금(국비)으로 운영되었으며,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 순회문고도 이와 같이 국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 단위에서 운영되는 순회문고는 도 지방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에 게재된 충청남도 와 평안남도의 순회문고 규정에는 모두 도 운영비로 순회문고를 운영한다고 규정하였고, 평안남도는 도서운반비도 도 운영비로 지출된다고 규정하였다. 경기도 교육문고도 우송료만 이용자 부담이며 나머지 경비는 도 지방비로 하였다. 공공도서관 중 관이 운영한 대구부립도서관의 순회문고도 세금으로 운영되었다. 관의 순회문고 중 다른 자금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경상북도 순회문고는 세금 외에 기증을 통해 잡지와 도서를 마련하였고, 경북 봉화 내성공립보통학교 순회문고는 학무위원이 기부하였다. 평안북도 경찰부는 총독부 경무국의 기부로, 경기 용진경찰서는 농장과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순회문고를 각각 설치하였고, 경기 안성군과 부천군은 향교재산을 활용해 순회문고를 설치하였다(동아일보 1936-08-05; 동아일보 1925-05-11; 조선신문 1929-01-15).

반면, 민간단체는 자체 예산(출자금, 회비, 구독료 등)과 기부 등으로 순회문고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함남 단천청년동맹 이중면 지부는 맹원 출자금으로 서적 50여 권을 구입하고 추가 서적 구입을 위해 개인 기증을 시도하였다(조선일보 1930-01-09). 함남의 신고산청년회는 농촌순회문고를 위해 지역사회에 서적 기부와 찬조를 요청하였다(동아일보 1925-02-21; 조선일보 1925-03-17). 평북 선천군 천도교 청년당은 순회문고 설치를 위해 수십 권을 기

증 받고 추가로 백여 권을 구입하였다(동아일보 1926-09-29; 매일신보 1926-09-30). 만주 동독시는 1인 연회비 1원을 징수하여 순회문고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고, 조선교육학회도 회원의 회비로 순회문고를 운영하려 하였다. 잡지사 동광은 후원회 성격의 사우회 회비를 받아 회원 특전 중 하나로 순회문고를 운영하고자 하였다(동광 제6호, 1926). 한편, 함남 북청군 신평청년동맹은 순회문고 이용시 강독료(금액 불명)를 징수하려 하였고, 사립도서관인 삼척도서관은 향교재산을 활용해 순회문고 설치를 준비하였다(조선일보 1927-04-20; 조선일보 1928-02-12).

운영금액 측면에서는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순회문고만 살펴본 결과, 총독부도서관의 국경수비대 순회문고가 연간 6천원, 충청북도 순회문고가 6천원, 대구부립도서관 상이군인 순회문고가 300원, 경기도 교육문고는 연간 2백원(이후 증액), 경북 봉화 내성공립보통학교 순회문고는 50원 정도가 소요되어, 순회문고 규모에 따라 금액의 차이도 나타났다.

둘째, 순회구역의 편성과 순회문고의 운영기간은 순회문고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역 편성과 관련해, 총독부 체신국 순회문고는 전 조선의 각 우편국소(郵便局所)를 수십 개의 구역으로 편성하였고(조선일보 1921-09-23), 총독부 철도국(만철) 순회문고는 전 조선을 30개 구역으로 나누었다(조선일보 1921-09-29) 만철 위탁 종료 후 철도국 순회문고 구역은 1939년에는 334개 구역까지 편성되었다. 그리고 도 단위 순회문고는 단일구역 또는 몇 개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평남 순회문고는 16개 부군을 1개 권역으로 편성한 반면, 충남 순회문고는 4-5개군

을 1개 권역으로 하여 총 3개 권역으로, 충북 순회문고는 각 부군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경북 순회문고는 23개 부군을 한 구역으로 편성한 순회문고와 대구, 김천, 안동 등 규모가 큰 12개 부군을 한 구역으로 편성한 순회문고로 운영되었다.

순회문고의 운영기간은 1개소당 최소 20일에서 최대 4개월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만철 순회문고와 총독부 철도도서관의 교양문고, 총독부도서관의 국경수비대 순회문고 등은 20일 단위로 운영되었고, 총독부도서관이 부립도서관 등을 지원한 순회문고는 당초 부정기에서 1개월로 정기화되었다. 평남 순회문고와 충북 순회문고, 대구부립도서관의 상이군인 순회문고는 각 1개월, 경북 순회문고는 1.5-2개월, 충남 순회문고는 2개월, 경기 교육문고는 4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순회문고 이용자격에 일부 차등이 존재하였다. 조사결과, 당시 순회문고의 이용은 자료를 대출하거나 지정 장소 내 열람하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모든 기관의 대출규정 등을 확인할 수 없지만, 관에서 운영한 순회문고 대부분은 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직원(가족 포함)이나 열차나 철도호텔 이용객, 그리고 관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청년단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였고, 일반 주민은 열람

만 가능하거나 대출시 보증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보에서 순회문고 규정이 확인된 충청남도의 경우, 관공서 근무자는 대출이 가능하나 공중은 지정장소에서 열람만 가능하였고, 평안남도의 규정에는 순회문고 이용은 도 및 산하 부군 등의 관공서 직원에 한정되었다. 평남의 규정(1921)은 이후 대출 대상자 확대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⁴²⁾ 평남 산하 진남포부 순회문고 규정(1925)에 의하면, 청년단이나 기타 단체는 1주 이내로 열람(대출을 의미)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열람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단체와 기타단체, 종교단체 등의 순회문고는 이용자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지만, 대부분 소속회원 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순회문고 별로 회원 또는 주민들은 특별한 제약없이 열람과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언론보도에서 확인된 함경남도 북청청년동맹 신포면 지부의 순회문고 규정⁴³⁾에 따르면, 회원들은 리(里) 단위의 반(班)에서 순회문고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용을 위해서는 대여료(강독료)를 지불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순회문고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순회문고 이용을 위해서는 문고 열람자대장 등의 작성이 요구되었다. 충남의 문고 열람자 대장에는 번호, 서목(書目), 책수, 열

42) 매일신보(1925-11-24) 기사에 따르면, 평안남도는 기존 순회문고에 통속적 서적도 다수 구입하여 일반 인민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도의 각 사무관, 이사관, 경시(현재의 충청급), 각 학교장을 망라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곧 예정이었다.

43) 1928년 2월 5일에 개최된 신포지부 제1회 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 중 <일, 순회문고에 대하여>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이 해체된 신포독서구락부 서책을 (신포)지부에 편입하여 반(班)에서 순회강독케하되 좌기 규정에 의함. (가) 강연(講演)기간 십일을 일기(一期)로 함. (나) 기간을 초과할 시는 배액의 강독료(講讀料)를 징수할 것. (다) 강독료는 『약(畧)』”(조선일보 1928-02-12).

람허가연월, 반납월일, 열람자(주소, 직업, 성명, 날인)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⁴⁴⁾ 진남포부도 같은 용도의 도서열람부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희망도서, 열람자 성명, 기타 필요사항, 날인 등이 포함되었다. 관련자료가 없어 확인은 어렵지만, 다른 관 소속 순회문고나 민간의 순회문고에서도 자료관리와 분실, 연체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이와 같은 양식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회문고 대출일수의 경우, 진남포부는 7일, 충남은 10일, 북청청년동맹 신포지부는 10일로 파악되었다. 대출권수는 열차문고의 경우, 1인 1회 1책이며, 진남포부도 일반 주민은 1회 1책이나 청년단과 기타단체 등은 3책까지 허용되었는데, 이러한 특례를 위해서는 사전에 단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약을 제출한 다음 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순회문고 이용과정의 주의사항도 존재하였는데, 충남과 평남, 진남포부의 순회문고 규정에는 오손, 분실, 전대(轉貸) 등이 금지되었고, 훼손, 분실 등의 경우, 변상하도록 하였는데, 진남포부에서는 동종 현품으로도 변상이 가능하였다. 주의사항 위반시 제재조치와 관련해 진남포부는 연체, 전대, 기타의 경우, 대출 금지의 제재를 가하였고, 북청청년동맹 신포면 지부는 연체시 순회문고 대여료(금액 불명)를 2배로 징수하고자 하였다.

한편, 충남 순회문고 규정에는 문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 군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각 군의 서무과에서는 수령한 순회문고에 대해 접수부를 작성하고 순회문고 시간과 장소 등을 홍보하도록 하였다.

3.5 장서의 수량과 주제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장서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총독부 철도국의 직원 대상 순회문고가 운영기간 중 최대 장서량이 28,460책에 도달하여 다른 순회문고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철도국의 가정문고는 300상자로 나타났는데, 순회문고 1상자당 20-40권 정도가 포함된다는 점⁴⁵⁾을 고려하면, 대략 6,000~12,000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어서 충청북도 순회문고가 5천부, 평안남도 교육문고가 3,150책, 총독부 철도국 심전개발문고가 2,275책 등으로 나타났고, 관의 순회문고 중 장서량이 적은 경우는 경상북도 순회문고가 742책, 평안남도 순회문고는 583부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관에서 운영하는 순회문고들로 민간단체에 비해 예산확보가 용이하고, 봉사권역이 전국 또는 도 지역을 관장하며, 봉사대상도 전국 또는 도 지역의 관공서 직원(가족 포함)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서량이 민간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민간의 순회문고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으나 관에 비해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항일단체들은 자료주제(항일, 계급혁명, 사회 사상 등)로 인

44) 충남의 순회문고 규정에 포함된 또 다른 양식에는 문고의 이동시 필요한 접수부(군명, 설치기간, 수령월일, 발송월일, 서무과장 성명/날인, 적요)와 도서목록(번호, 저자, 서명, 책수, 가격, 적요) 등이 존재하였다.

45) 순회문고 1상자당 책수를 살펴보면, 철도국 순회문고는 1상자에 20책, 철도국 심전개발문고는 1상자에 42책, 철도국 열차문고는 1상자에 40책, 평남 순회문고는 1상자에 18책, 경북 순회문고는 1상자에 15책 정도로 나타나 20-40권 정도로 추정하였다.

한 자료입수 한계와 단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재정적 한계 등으로 순회문고 장서 수는 관에 비해 적은 수량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항일단체 중 순회문고의 장서량을 알 수 있는 단천청년동맹 이증면지부 순회문고는 약 50여 권에 불과하였고, 민간단체 중 종교단체인 평북 선천군 천도교 청년당의 순회문고 장서량도 100-200권 정도로 나타나 민간단체 순회문고의 장서량은 대체로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참조).

일제강점기 순회문고 장서의 주제는 해당 순회문고의 운영목적과 운영주체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관공서 직원들의 지식향상과 업무

증진을 위한 순회문고는 주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장서들로 구성되었고, 직원과 그 가족, 열차와 철도호텔 이용객, 지역 주민 등의 독서편의와 국경수비대/상이군인 위문을 위한 순회문고는 대체로 문학이나 오락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심전개발문고와 같은 순회문고는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위한 서적들이 위주였다. 이처럼 일제 행정기관이나 이에 영향을 받는 관변단체와 도서관 등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제가 허용하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구비하였고, 일제의 식민정책을 뒷받침하는 장서들(내외 정세, 전쟁이야기, 외국사정 등)도 순회문고 내에 포함되었다.

〈표 4〉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장서량과 장서 주제

순회문고	장서량(최대치)	장서 주제
총독부 국경수비대 순회문고	-	주로 오락물
총독부-철도국(순회문고)	28,460책	문학/어학(41%), 총류와 사회과학(각 12%) 등(대출 통계 기준)
총독부-철도국(교양문고)	85개 상자	업무관련 자료
총독부-철도국(심전개발문고)	1936년 1개월간 발송책수 2,275책	일본 민족종교 신도, 종교일반, 일본인 전기 등
총독부-철도국(가정문고)	300상자	-
총독부-철도국(열차문고)	-	시사물, 신소설, 통속 서적, 숙녀화보 등 대중도서
총독부-철도국(호텔문고)	6개의 문고본 상자	-
경기도 교육문고	1,000권 내외 추정	교육도서 외에 일반 수양서적
평안남도 순회문고	583부	내외 정세, 법률, 수양 + 이후 통속서적
평안남도 교육문고	3,150책	교육도서 추정
충청북도 순회문고	5천부	법률, 경제, 문학, 상공업 등
경상북도 순회문고	742책(48개 상자)	산업, 정신수양, 법률, 지리/역사/전기, 이과, 행정, 교육, 외국 사정, 사상 등
경기 부천군 농촌순회문고	-	취미, 문학, 산업, 종교 등
혁신/사회주의계열 단체들의 순회문고	-	민족, 계급, 사회사상, 사회과학 등으로 유사(매체는 도서, 잡지 + 팜플렛, 리플렛 등)
함남 단천청년동맹 순회문고(이증면 지부)	50여권	-
영광군 과학연구회	-	연구 및 참고서적
조선성교서회	-	기독교 교리와 신앙생활 관련 도서 위주 + 질병예방, 위생, 자녀양육법 관련 도서 포함
평북 선천군 천도교 청년당	수십권 + 1백여권	사상서류, 경제서류, 기타
대구부립도서관-상이군인	-	수양, 오락, 전쟁이야기 등

반면, 항일단체 중 민족주의/좌우합작계열 단체의 순회문고는 장서 주제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대체로 민족의 자주와 독립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혁신/사회주의계열 단체의 순회문고에 관한 자료도 대부분 간략한 형태로 자세한 파악은 어려웠지만 순회문고 설치 목적에 맞도록 대체로 민족문제와 계급문제, 사회사상, 사회과학 등에 관한 내용이 위주였다. 이런 자료는 당시에 도서 형태로 출판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순회문고의 매체 형태도 행정기관, 관변단체, 도서관 등이 도서와 잡지 위주인 것과 달리, 도서와 잡지 외에 팜플렛, 리플렛 등도 자주 등장하였다. 장서 주제가 확인 가능한 기타 단체와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관련 서적, 연구와 참고 관련 서적, 사상서, 경제서, 근대적 생활양식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국내에 도서관 인프라가 열악했던 상황에서 도서관 역할을 대신하며 널리 활용되었던 순회문고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운영주체별 유형은 첫째, 일제 행정기관에 의한 순회문고로, 조선총독부도서관과 조선총독부 철도국 철도도서관(만철경성도서관), 체신국,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 등 중앙행정기관과 경기, 평남, 충북, 충남, 경북 등 도 단위와 경기의 경성, 안성, 부천, 용진(경찰서), 경북 달성과 봉화(공립고교), 강원

삼척 등 부군 단위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운영되었다. 둘째 민간단체에 의한 순회문고로, 여기에는 일제와 일본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일제에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관변단체, 그와 반대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항일운동단체(민족주의/좌우합작계열 항일 단체와 혁신/사회주의계열 단체),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없거나 관련자료 부족으로 성향 파악이 어려운 기타 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되었다. 셋째, 공공도서관에 의한 순회문고로, 공립 공공도서관인 대구부립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인 부산도서관과 삼척도서관에서 운영되었다.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순회문고 설치시기는 1912년경부터였지만 순회문고가 활발히 설치된 것은 1920년대였고, 1930년대부터는 민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행정기관과 관변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순회문고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시기적 특징은 일본의 조선 지배 정책의 변화와 항일운동 단체의 조직적 활동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설치목적은 일제행정기관과 일제의 영향을 받는 관변단체와 도서관 등의 경우, 관공서 직원의 지식증진과 업무향상, 직원(가족)의 복지, 친일 의식 고취, 이용객 편의, 수감자 교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기저에는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항일단체들의 순회문고는 항일의식 고취를 통한 민족의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의 영향에 따른 무산계급의 해방과 사회주의 실현 등을 위한 이념적 지원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기타 단체와 종교 단체의 순회문고는 대체로 지역주민의 독서편의

제공의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셋째, 봉사대상은 관의 순회문고의 경우, 관공서 직원(가족) 전체 대상, 국경수비 경관, 상이군인, 경찰, 교사 등 한정된 직원 대상, 일반주민 전체 대상, 열차나 철도호텔 이용객, 교도소 수용자 등 한정된 주민 대상 등으로 구분되었다. 민간 순회문고의 봉사대상은 단체 구성원 대상과 지역주민 대상, 그리고 지역의 경찰, 청년단, 잡지사 사우회, 종교 신도, 특정 고교학생 등 한정된 봉사 대상 등으로 구분되었다.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는 지역주민과 상이군인 등을 봉사대상으로 하였다. 봉사권역과 관련해 가장 넓은 것은 조선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선총독부 소속 기관의 순회문고들이었고, 이어 국경지역이나 만주지역 등 여러 지역들을 포괄하는 경우, 그리고 도 단위, 부군 단위(만주의 현), 읍면 단위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좁은 것은 특정 교도소, 고등학교 대상 순회문고였다.

넷째, 운영방식과 관련해 순회문고 운영비는 관의 경우, 세금을 위주로 하면서 다른 자원(기부)도 일부 활용하였고 민간에서는 자체예산과 기증이 위주였다. 순회구역의 편성은 전국 단위의 경우, 전국을 수십 개 또는 최대 334개 구역으로 구분하였고, 도 단위의 경우, 단일구역 또는 3개 내외의 구역 구분하였다. 순회문고 운영기간은 1개소당 최소 20일에서 최대 4개월로 나타났다. 순회문고 이용자격에는 차등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대출 또는 지정 장소 내 열람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순회문고의 이용을 위해서는 문고열람자대장 작성이 필요하였고, 대출

일수는 7~10일로 파악되었으며, 대출권수는 1회 1책이 기본이나 특정 계층은 3책까지 허용되었다. 순회문고 이용 주의사항에는 오손, 분실, 전대, 연체 금지 등이 포함되었고,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조치(변상, 대출 금지, 연체료 벌금 등)가 포함되었다.

다섯째, 장서의 수량은 관의 순회문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철도국 직원 순회문고가 최대 28,460책에 이르렀다. 민간의 순회문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최대 2백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의 주제는 순회문고의 운영 목적과 운영주체의 성향이 투영되어, 각 순회문고마다 업무 관련 자료, 문학과 오락 위주 자료, 황국신민화 관련 자료, 민족자주와 계급혁명에 관한 자료, 기타 종교서적과 연구 및 참고서적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일제강점기에 전국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대신하며 일제 행정기관과 관변단체, 항일단체, 기타 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공공도서관 등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었지만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던 순회문고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일제강점기 순회문고 중에서 그나마 관련 활동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파악되는 것은 철도도서관이 운영한 순회문고에 한정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에 관한 보다 많은 사료들을 국내와 일본 등에서 발굴하여 관과 민간에서 추진된 당시의 순회문고 활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규명하는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고숙화 (1995). 형평청년전위동맹사건에 대하여. 국사관논총, 64, 137-167.
- [2] 국립중앙도서관 (1973). 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3] 국사편찬위원회 (2001).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4] 권은경 (1981). 개화기·일제치하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圖書館研究, 22(4), 7-29.
- [5] 김경희 (2021). 근대 부산 교육과 도서관: 개성학교와 일본홍도회부산지회 문고를 중심으로. 향도 부산, 42, 443-480.
- [6] 김남석 (1991). 일제하 청년단체의 도서관설립활동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18, 11-59.
- [7] 김남석 (1996). 일제시대 농촌문고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4, 335-364.
- [8] 김남석 (2001). 대구부립도서관과 일제의 식민지정책.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1-23.
- [9] 김영석, 이용재 (2018).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중심으로. 49(2), 131-150.
- [10] 김자중 (2019). 일제 식민지기 통신학교의 설립과 중학강의록의 발행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33(2), 27-54.
- [11] 김포옥 (1979). 일제하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6, 137-163.
- [12] 김포옥 (1982). 철도도서관에 관한 고찰: 특히 일제하의 도서관봉사활동을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9, 63-83.
- [13] 김혜진 (2019). 부산지역 여성독립운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 [14] 大邱府 (1939). 昭和十四年度大邱府歲入出豫算. 大邱: 大邱府.
- [15] 文獻報國 (1935a). 朝鮮總督府圖書館略史. 文獻報國, 1(1), v.
- [16] 文獻報國 (1935b). 本館巡廻文庫廻送狀況. 文獻報國, 1(2), vi.
- [17] 文獻報國 (1937). 館報. 文獻報國, 3(9), 18-20.
- [18] 박찬승 (2011). 해외수집기록물해제: 일본편 2. 대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19] 배은선 (2017). 일제강점기 철도종사원 양성교육과 철도도서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 [20] 송승섭 (2020). 日帝 强占期 京城圖書館의 變遷 過程에 관한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71-90.
- [21] 송승섭 (2021).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현황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171-196.
- [22] 안세현 (2019). 한말~일제강점기 강릉지역 유림의 활동 양상과 그 의미: 지역사회에서 유교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과제. 고전과 해석, 29, 109-140.

- [23] 이송희 (2005). 일제하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교육(1): 일본인 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한일계사 연구*, 23, 203-251.
- [24] 이장식 (1984). *大韓基督教書會 百年史*.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25] 朝鮮之圖書館 (1931). 朝鮮總督府圖書館巡廻文庫. *朝鮮之圖書館*, 2, 28-29.
- [26] 朝鮮之圖書館 (1932). 總督府圖書館昭和七年閱覽狀況. *朝鮮之圖書館*, 3(2), 23-24.
- [27] 朝鮮總督府 (1939). 朝鮮鐵道狀況. 京城: 朝鮮總督府.
- [28] 青木修三 (1941). 最近に於ける朝鮮の圖書館界. *文獻報國*, 7(11), 11-12.
- [29] 홍승표 (2020). 일제하 한국 기독교의 독서운동과 교회도서관의 도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 227-26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oh, S. H. (1995). A study of case of vanguard union of Hyongpyeongsa young person, *Gooksaguannonchong*, 64, 137-167.
- [2] National Library of Korea (1973). *The History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3]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2001). *Wartime System and National Movement*. Gwache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 [4] Kwon, Eun-Kyung (1981). A study on public libraries in Korea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and Japanese colonial rule. *Doseogwan Yeongu*, 22(4), 7-29.
- [5] Kim, Gyoung Hee (2021). A study on education and library of modern Busan: focused on Gaeseong School and Japan Hongdo Association Busan Branch. *Hangdo Busan*, 42, 443-480.
- [6] Kim, N. S. (1991). A study on the library establishment movements of young men's association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8, 11-59.
- [7] Kim, N. S. (1996). 24, A study of rural-mini librarie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4, 335-364.
- [8] Kim, N. S. (2001). Taegu Burip library and Japanese colonial poli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4), 1-23.
- [9] Kim, Y. S. & Lee, Y. J. (2018). A study on the first modern public library in Korea: focusing on Japanese Hongdohoe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131-150.

- [10] Kim, J. J. (201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rrespondence schools and the publication of lecture notes for secondary school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Educational Idea*, 33(2), 27-54.
- [11] Kim, P. O. (1979). Study on the Korean public libraries under the period of the Japanese rul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 137-163.
- [12] Kim, P. O. (1982). A study on the railroad library under the Japanese rul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9, 63-83.
- [13] Kim, Hye-Jin (2019). *The History of Female Independence Movement in Busan*.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Kyungsung University.
- [14] Daegu Bu (1939). *Written Settlement of Accounts Concerning Revenue and Expenditure of Daegu Bu in 1939*. Daegu: Daegu Bu.
- [18] Park, C. S. (2011). *Bibliographical Notes on Overseas Collection: Japan 2*.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19] Bae, E. (2017). *A Study on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Library of Korean Railroad before 1945*. Doctoral dissertation, Woosong University, Korea.
- [20] Song, Sung-Seob (2020). A study on changing process of the 'Kyungsung Librar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of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71-90.
- [21] Song, Sung-Seob (2021).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ities of Korean library staffs who worked in librar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3), 171-196.
- [22] Ahn, S. H. (2019). The activities of the confucianists in Gangneung (1894~1945). *The Comments on the Korean Classical Texts*, 29, 109-140.
- [23] Lee, S. H. (2005). A study on the Japanese society's education in Busan during Japanese colonialism. *Journal of The Korea-Japan Historical Society*, 23, 203-251.
- [24] Lee, J. S. (1984). *100 Year History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Seoul: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 [27]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39). Current Status of Railway in Chosun*. Seoul: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29] Hong, Seung Pyo (2020). Korean christianity's reading movement and introduction of a church librar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16, 227-265.